

## 2023 경기 재수 합격 수기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경기 재수로 합격한 신규교사입니다.

늦었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합격수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수이긴 하지만 거의 초수에 가까운 노베이스 재수이라는 것 참고해주세요!

\* 모든 내용은 정답이 아니니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고 참고하셔서 본인의 공부 성향과 맞는 부분만 취합하시길 바랍니다.

점수는 1차는 컷+10, 2차에서는 최종적으로 컷+14.16 최종 석차 3등으로 붙었습니다.

1차	전공	교육학	총점
2021 초수	과락	12.67점	-
2022 재수	55점	20점	75점 (컷 + 10)

2차				
실기	수업실연	수업나눔	개별면접	총점
22점	18.69점	9.33	38.67	163.74 (컷 + 14.16)

## 6

### 목차

1. 공부기간(상황)
2. 강사선택
3. 공부 스케줄 + 공부방법
  - 1) 전공
  - 2) 교육학
4. 스터디
5. 마음가짐, 점수 올린 방법
6. 2차 준비

## 1. 공부 기간

1년 4개월 (2021. 02 ~ 06 / 2022. 01 ~ 2022. 11 )

### \* 초수

#### ▶ 2021년 상반기

학부 때 동양화 전공을 한 뒤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함.

2021년 2월 대학원 5기, 논문 작성과 동시에 임용 공부를 시작하였으나 체력고갈과 함께 병이 나서 강의만 간신히 봤고 따라서 6월에 논문 마무리와 함께 잠시 공부를 중단함.

#### ▶ 2021년 하반기

공부를 그만두고 잠시 쉬며 아동미술 학원에서 강사로 일함.

### 2021년 1차 시험 (2022 임용시험)

흔히들 말하는 관광고시로 시험장 분위기만 구경하고자 신청하여 불펜 한 자루만 들고 감.

점수는 당연히 과락으로 나왔음. 그렇지만 이유 모를 자신감으로 웬지 2022년 한 해 올인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미술학원 일을 마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올인.

### \* 재수

#### ▶ 2022년

학원 일이 끝난 3월부터 올인 시작,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 2022년 1차 시험 (2023 임용시험)

2022년도 시험도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간 것이 아니고 짝어서 풀은 문제도 있음. 그렇지만 한 해 공부한 내용과 취지 파악을 토대로 풀었고, 난이도는 전년도보다 더 어렵다고 느꼈음.

### 2차 시험

1차 시험이 마친 후 바로 시작했으며, 따로 강의는 듣지 않고 스터디를 구해서 진행함.

## 2. 강사선택

### 전공: ㅇ스 1년 패키지 + ㄷㄷ 모의고사

작년에 이어서 그대로 들었고, 다만 부족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ㄷㄷ 모의고사, 기본서만 추가했습니다.

- 1~2월 기본이론 > 2022년 수강, 2023년 안 들음
- 3~4월 심화이론 > 직강
- 5~10월 > 직강 (교과서, 기출 > 인강 / 거의 안 들음)
- 11월 > 인강

### 교육학: ㄱㅈㅈ 1년 패키지

작년 ㅇ스ㅎ 기본이론 들은 상태로 완전 노베이스는 아님

ㅇ스ㅎ도 좋았지만 ㄱㅈㅈ의 강의를 저한테 더 맞았고 적응률을 믿고 강사를 바꿈.

- 1~2월 기본이론 > 거의 안 들음
- 3~4월 심화이론 > 직강
- 5~10월 > 인강

### 3. 공부 스케줄 + 공부방법

#### 1) 전공

##### ▶ 1~2월 인강

아직 학원 일을 병행하던 시기로 인강을 거의 듣지 못함. 다행히 초수 때 기본이론 강의를 듣고 필기해둔 것이 있어서 아예 듣지 않은 수준은 아니었음. 제일 부족하고 어렵다고 느낀 교육론, 감상, 동미사, 한미사 부분만 들었고 서미사는 흐름 판서 부분만 들음.

##### ▶ 3~4월 직강

본격적으로 학원 일을 마치고 올인, 쌰옌꺼서 강의 초반에 짜주는 스케줄 그대로 진행

교육학과 전공 직강을 나갔으며 잠시 한 달 정도 일주일에 한 타임씩 전공 손풀기를 함. 일요일은 쉬는 날로 주일예배를 드리거나 데이트를 했고 하루 평균 순공시간 5시간 썩 채웠습니다.

만약 기본이론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강의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거의 노베이스였기 때문에 심화 내용이 처음보는 것 같고 어려웠지만 수업을 마친 이후에 같이 강의를 수강하던 대학원 동기와 함께 퀴즈를 내줘가며 반드시 복습을 하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 더 읽고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강의 녹음한 것을 다시 듣고, 단권화를 했습니다. 단권화 방법은 기본서에 심화서, 쏜 기본서를 추가함. 단권화 작업은 단순히 내용 옮기기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끼워 넣고 정말 필요한 것만 추가해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 ▶ 5~6월 직강

서술형 및 기출 침삭 직강/ 교과서 강의 인강

먼저 교과서 강의는 간신히 강의만 봤고, 복습은 한, 두 번 정도밖에 안 봤기 때문에 교과서 강의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른 것 보기 바빴기 때문에 도판 정도만 봤습니다.)

★★ 서술형 및 기출 강의 >> 쏜강의의 제일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쏜선생님께서 계속하여 취지 파악을 강조하시면서 문제를 읽고 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전혀 모르지만 취지를 파악하여 맞춘 문제가 몇 개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취지파악을 하려고 노력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대략적인 스케줄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서술형 및 기출형 복습/ 못다 한 정리마져 하기	전공 전 영역 나눠서 공부	교육학인강	전공 전 영역 나눠서 공부	교과서 강의 인강	학원직강	주일예배
	교육학 인강	교육학		전공 전 영역 나눠서 공부	취지파악 정리/ 기본서 찾아보기	밀린 것 보충/자 유시간

공부 방법은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취지 파악하면서 답안과 틀린 부분에 대해 정리하고 그 내용을 기본서에서 찾아보고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공부 속도가 엄청 느린 편이라 하루 안에는 다 못하고 양이 많은 날은 최대 3일까지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남은 시간에 단권화한 기본서를 영역별로 나눠서 봤습니다. 저는 전 영역을 한 주 안에 다 보지 못하고, 1회독하는데 대략 3주 정도 걸렸습니다.

### ▶ 7~8월 직강

영역별 모의고사 강의 직강

기출분석 강의 인강 (거의 안 들음, 저는 5~6월과 심화서 기출문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6월에는 희소 모의고사가 있었고 그때 충격을 먹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주 5일 오전 전화 스터디와 저녁 전공 퀴즈 전화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암기는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거의 보고 읽었습니다. 안 보고 대답한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015 교육과정 암기 (1시간~1시간 반)					학원직강	휴식/ 도판분석
교육학 + ㄷㄷ 형성평가 전화스터디 (1시간)						
전공 기본이론 상권	교육학 복습	영역별 모의고사 복습	전공 기본이론 하권	영역별 기출 인강	주일에배	
		교육학 인강		복습		
	교육학 인강	전공 퀴즈 스터디		전공 퀴즈 스터디	취지파악 정리	미린 것 보충/자유시간

공부방법은 5-6월과 마찬가지로 영역별 모고 강의를 듣고 난 후에는 취지파악을 다시 생각하고 똑같이 문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 다른 것은 이전에는 교재를 보고 풀은 것도 있었지만 7-8월 부터는 문제를 풀 때 교재를 절대로 보지 않고 모르는 것은 그냥 틀렸습니다.

### ▶ 9~10월 직강

실전 첨삭 모의고사 직강

이때부터는 평소 공부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기고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므로 점수가 오르내리는 것에 희비가 교차했던 시기였습니다. 제 모의고사 등수는 12-8-34로.. 마지막에 급격히 떨어져서 멘붕이 왔었지만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 실제 시험이 아니니 이제라도 모르는 부분을 안 것에 감사하며 공부 하려고 했습니다.

계획은 정확한 루틴으로 돌리기보다는 매주 부족한 영역을 위주로 매번 다르게 나눴습니다.

오전	ㅇㅇ, ㄷㄷ 모의고사 퀴즈 + 교육학 퀴즈를 내는 전화스터디 1시간~2시간 / 교육학 공부
오후	전공 영역별 부족한 부분 공부
직강 다녀온 날	모의고사 문제 5-6, 7-8월과 같이 취지파악 정리, 기본서 체크하기

오후 시간대에는 한 영역을 하루 안에 다 보지는 못했고 예를 들어 표현 파트는 하루/ 교육학+감상은 하루 반~이틀/ 서미사, 동미사는 삼일 정도 걸쳐서 봤습니다. 매우 천천히 봤지만 한번 볼 때 정확히 보려고 노력했고 누가 물어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순공시간은 위기감이 들었으므로 중간 중간 쉬어가며 했음에도 한번 하는 날은 10시간 이상씩 채워서 평균 8시간이 넘었습니다.

▶ 11월 인강

마지막 파이널 강의, 한달 총 공부시간을 3주 안에 채울만큼 미친듯이 봤습니다. 강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보지 않고 다른 선생님들과 답만 영역별로 나눠 작성해서 공유했습니다. 적는 것은 거의 하지 않고 최대한 많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몸이 정말 안 좋아서 책상 앞에 앉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쉬면서도 계속 내용을 떠올려보았습니다.

저는 11월에 처음으로 일주일에 전 영역 1회독이 가능했고 시험 보기 직전에는 3일 만에 전 영역 1회독이 가능해졌습니다. 암기가 되지 않던 부분들도 계속 반복해서 보니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내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선생님들도 저처럼 회독이 느려도 너무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복과 꾸준함만 있으면 암기력이 급상승하는 시기가 반드시 오실 겁니다. : )

2) 교육학

1~2월 기본이론	3~4월 심화이론	5~6월 사례연습반	7~8월 영역별 모의고사	9~10 종합 모의고사
인강수강	직강수강	인강수강	인강수강	인강수강
학원일 병행중으로 거의 못 들음.	학원 스터디 진행(퀴즈내기-논제속속) 청킹, 이해	전공공부에 치중하느라 거의 수강 x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해 설강의, 이론 핵심정리 수강, 모의고사 반복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해 설강의, 이론 핵심정리 수강, 모의고사 반복

▶ 1~2월 인강

작년 ㅇㅅㅎ 기본이론을 들긴 했던 터라 이해만 좀 되는 수준. 그래서 거의 훑어보듯이만 아예 기억 안나는 교육행정, 교육심리 정도만 수강했습니다.

▶ 3-4월 직강

이 시기가 가장 잠도 안자면서 교육학에 집중했던 시기입니다. 아침에 한시간 반 일찍 가서 스터디하기로 한 문제(프린트물 문제) 예상답안을 작성하고 그 부분을 최대한 안보고 말할 수 있도록 암기하였습니다. 물론 양이 방대하여 다음 파트로 넘어가면 다 까먹긴했지만 암기는 무조건 이해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3~4월에 가장 집중한 것은 이해, 청킹 암기, 스터디 문제 예상 답안 만들어보기 이 세가지였습니다.

### ▶ 5~6월 인강

이때 기출과 사례연습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전공공부가 너무 시급하고, 막막하여 전공만 집중해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다른거지만 저는 기출은 안봤습니다. 교육학은 한번 나온 범위가 다시 나온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 두개 정도 살피면서 문제가 나오는 스타일과 예상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감만 잡는 정도만 보세요.

ㅈ쌤 선생님이 기출예상으로 올해 가장 중요한 부분, 빈출정도가 높은 부분을 짚어주므로 전략적으로 그 부분 위주로 보고 나머지는 나중에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공이 80% 차지하니까 전공이 부족하다면 전공에 힘쓰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 논제쪽쪽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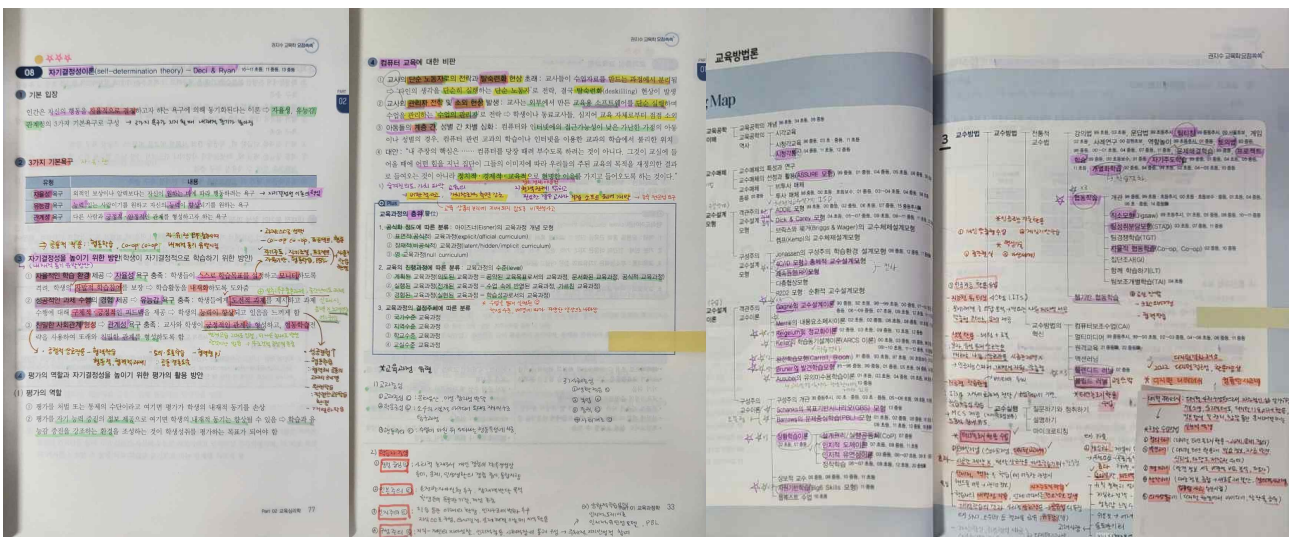
이때 사는 교재의 부록으로 논제쪽쪽이 있습니다. 이 논제쪽쪽이 바로 3~4월에 나눠주는 문제의 모범답안 같은 교재입니다. 저는 5~6월 강의는 안 들어도 이것만은 꼭! 사서 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 ▶ 7~10월 인강

모의고사 강의를 시작됩니다. 인강으로 수강했고, 저는 다 듣지 않았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만 다운받아 풀어보고, 예상 답안을 퀴즈내는 전화스터디를 진행했고, 모의고사에 나온 부분만 다시 교재에 정리했습니다. 예상답안을 보고도 왜 이거지 이해안되는 부분들만 골라서 듣고, 각 단원별로 핵심 정리부분만 2배속으로 듣고 청킹을 다시 정리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모든 청킹과 모의고사에 나왔던 부분을 체크하고 요점이라서 없는 부분, 예상답안 내용들을 추가하여 아래처럼 요점쪽쪽 교재에 필기했습니다.



## 4. 스터디

가장 도움이 된 스터디는 6월 회소 모의고사 직후 7월부터였습니다.

주 5회 오전에 한 시간에서 최대 두 시간씩 투자했고 처음에는 못 외웠는데 시험 직전에는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스터디 시간은 처음에는 길다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개인 공부시간을 늘리려고 줄여갔습니다. 또 매주 안 쉬고 한 것은 아니고 개인당 2회의 찬스를 써서 한 달에 4~5회 정도는 쉬어갔습니다.

### ▶ 스터디

(1) ㄷㄷ 형성평가 + 교육학 ㄱㅈㅈ 논제썩썩 읽는 전화스터디 (7월~9월) 주 5회

문제를 내서 외워서 하기로 했지만 외우는게 힘들어서 외우는 것은 시도만 하고 완벽히 외우지 못한 채 열심히 읽었습니다. ㄷㄷ 강의를 듣는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했고 ㅇㅈ 강의에서 놓친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2) ㅇㅈ 복습 전화스터디 (2달 반 정도 진행) 주 2회

영역별로 나눠서 2주 반에 걸쳐서 기본, 심화, 교과서, 모의고사 구분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모를것 같은 부분 들을 서로 퀴즈를 내줬습니다.

(3) ㅇㅈ, ㄷㄷ 모의고사 + 교육학 ㄱㅈㅈ 모의고사 전화스터디 (9월 말 ~ 10월 말) 주 5회

- 전공

모의고사 문제를 계속 돌리며 문제를 내주는 전화 스터디로 1번 스터디원과 이어서 함께 진행 문제를 내고 서로 각자 강사의 문제를 설명해 주면서 복습이 많이 되었습니다.

- 교육학

첫 6월~7월 두달 정도는 논제 썩썩을 매일 20문제 이상 정도 번갈아가면서 답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강의를 개강한 7월 중순부터는 모의고사 문제도 함께 했습니다.

9월부터는 최대한 암기해보려고 논제문제를 줄여서 12~15개 정도로 문제를 냈고 모의고사도 함께 반복해서 2~3회정도 돌렸습니다.

이때도 문제에 대한 답을 외워서 답변한 수는 많지 않습니다. 결눈질로 보아가면서 답을 했습니다.

(4) 도판 분석 스터디 (약 2달 반, 7월~10월)

제가 부족한 점은 무엇보다 미술사 파트였습니다. 항상 끝에 있는 미술사 강의를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 스터디원과 ㄷㄷ와 ㅇㅈ의 기본서, 심화서, 교과서의 모든 도판을 시대순, 작가별로 합치고 설명을 찾아 적어 자료를 만드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워낙 양이 방대해 가끔 주객이 전도되어 이걸 하느라 다른 공부를 못했지만, 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작가의 특징과 도판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비효율적이므로 시간이 남으면 하시고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5. 마음가짐, 점수 올린 방법

학원에서 모의고사 채점을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 채점을 해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멘탈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모의고사 점수가 거의 중간에서 놀았기 때문에 마음은 안 좋았지만 도망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점 받는 시험이 아닐뿐더러 모의고사 점수일 뿐 실제 점수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되새기려고 했습니다. 틀린 것에 속상해하기보다 이제 모르는 것을 하나씩 씹어먹겠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끝까지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이어 나갔습니다.

거의 노베이스 재수이었음에도 점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었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반복해서 보기 (전화스터디 활용하기)

(1) (3)의 전화스터디로 혼자면 진도가 전혀 나가지 않는 것을 나가게 해서 한번씩 보도록 했습니다. 암기 해서 답한 것은 아니지만 반복해서 보는 것이 결국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 2. 단권화, 목차만들어보기

따로 봐도 되지만 저는 단권화 자료를 만드면서 이해도 하고, 큰 목차를 머리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여러개 한번에 보는 것을 싫어하는지라 딱 하나로 만드는 것이 제 성향에 딱 맞는 방법이었습니다.

### 3. 강의 중 궁금한 것 물어보기

저는 같이 전공 강의를 듣는 선생님과 중간중간 궁금증이 생기면 서로 질문해 바로바로 해결했습니다. 만약 저희끼리 안되는 것은 교수님께 가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나가신다면 근처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수업이 마친 이후에 궁금한 것은 바로 바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생생하게 기억에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4. 2015 교육과정 암기

4~5월까지 중등/ 6월 고등, 교수학습방향, 평가방향/ 7월 말부터 미감, 미창을 뒤늦게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취기준은 동요로 외웠고, 나머지는 그냥 생으로 암기했습니다. 학교급별 목표는 완벽히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교육과정이 휘발성이 강해 하루에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씩 안 외우면 금방 까먹을 정도로 시간이 좀 아까울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안 외우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만 저는 꼭 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도 시험도 교육과정 관련 문제가 교육과정을 몰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지만 외웠으면 당연히 더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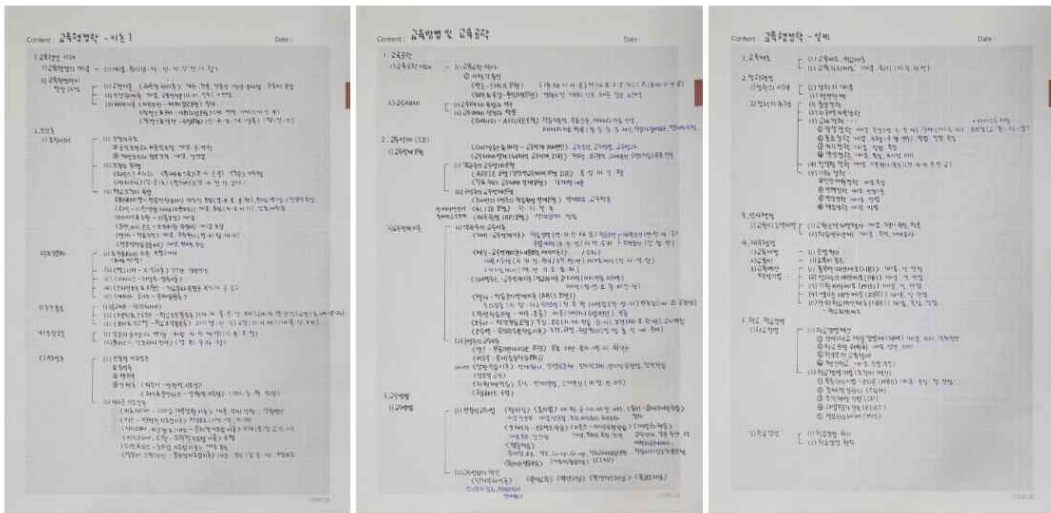
따라서 외우기만 하면 단순 답 찾기라 무조건 2점 이상은 가져가실 수 있으니 외우는 것을 추천드려요!

### 5. 교육학: 이해와 청킹, 그리고 구조화

상반기는 암기보다 이해에 더 치중한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이 말해주는 청킹은 다 적었고 다른 부분도 암기가 어려우면 저 나름대로 청킹을 만들어보았습니다. 그 후 목차를 만들어 목차에다가 청킹만 적었습니다. 아마 계속 반복해서 읽기만 했는데도 암기가 된 것은 바로 이 구조화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구조화가 된다면 시험 직전 11월에는 한달 내내 걸리던 1회독이 일주일 > 3일 > 하루 2~3회독 순으로 가능해집니다.



시험 직전에는 이 목차랑 요점씩씩 교재만 들고 가서 떠올려봤습니다.



6. 논술 작성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해볼 것.

하반기에는 논술 작성을 꼭 해봐야 합니다. 시간을 두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서 시간 내 작성을 다 하는 연습, 그리고 반드시 핵심 키워드와 구조화된 답변을 작성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전공서술형 답안 작성도 포함됩니다.

## 6, 2차 준비

처음 준비해봐서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주변에 2차를 준비해봤던 스터디원들이 많이 이끌어줬습니다.

2차는 정말 힘들고 1차보다 더 바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체력관리가 필수입니다.

- 실기: 경기도는 이번에 아예 4개 전공에서 동양화/서양화, 조소/디자인 택 1, 2개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동양화, 조소를 선택했습니다.

평달에는 딱 한달 정도만 일주일에 한타임 손을 풀었고, 1차가 끝나자마자 바로 실기를 주 5일 나갔습니다. 저는 동양화 전공이고, 조소도 예고에서 어느 정도 한번씩 해본 경험이 있고 형태력이 중상정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달에는 많이 안했습니다. 1차 발표가 나면 실기 시험 직전까지 하루종일 주 6일을 하게 됩니다.

- 수업실연: 학원 강의는 수강하지 않고 오로지 스터디로만 진행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스터디룸을 빌려서 진행했고, 1차 발표가 난 뒤에는 주 3회 같은 경기지역끼리만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나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기출로만 돌렸습니다. 자신만의 수업틀을 만들어 적용했습니다. 기출을 다 돌린 후에는 직접 문제를 만들어서 진행했습니다.

- 수업나눔: 수업실연이 마친 뒤 기출문제로 똑같이 진행했습니다. 사이다 수업실연 책에 예상문제도 돌렸습니다.

- 면접: 1차 발표전까지는 사이다 면접책을 파트를 나눠 시책을 찾아서 서로 소개해주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한 두 번 보다가 실제 면접 연습은 실기시험이 끝난 뒤 1주일동안에 정말 죽을 듯이 했습니다. 면접은 시책을 이해하고 익히는 것, 자신만의 방안을 만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너무 벼락치기를 해서 힘들었기 때문에 부디 1차 발표전에 말하는 연습도 많이 해보고 시책을 어느정도 외워보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서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 )